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s of Accounting Policy for R & D Costs

조성표*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determining accounting method for R & D costs (capitalize vs. expense) in Korea. Using agency theory and other economic factors, probit and regression models have been developed to distinguish between firms choosing different accounting alternatives for R & D costs. The results are consistent to debt contract, R & D burden and regulation hypotheses both in probit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ize variable has opposite sign in univariate t-test and probit analysis but the signs are mixed and insignificant in regression which may be due to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Generally, the results are consistent to those of previous research. Th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firms with higher leverage and larger burden of R & D costs are more likely to capitalize R & D costs. Partially, larger and regulated firms are more likely to expense R & D costs.

I. 서론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경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영자는 이들 중에서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데, 이러한 회계선택과정을 회계정책결정이라고 한다. 최근의 회계이론에서는 기업의 회계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에서는 대리인이론과 여러 경제적 요인들을 이용하여 기업의 회계선택(이를테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을 선택)을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기준에서는 발생시 비용화하거나, 비경상적 연구개발비는 자본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2.39%를 지출하고 있으며(1993년도),¹⁾ 대기업들의 경우는 5%이상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느냐, 자본화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은 기업의 이익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기업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종전의 연구 및 가설의 설정

2.1 독립변수: 연구개발비 회계정책 결정변수

이제까지 여러 회계분야에서 회계정책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을 설정할 수 있다.

1) 부채계약

일반적으로 부채계약에서는 부채비율등 회계변수를 이용하여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채비율이 제약조건의 상한에 근접한 기업들은

1) 과학기술처, 1994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1994년 12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증가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한다: Lilien and Pastena(1982), Bowen, Noreen and Lacey(1981), Dhaliwal, Salamon and Smith(1982), Zmijewski and Hagerman(1981). 그러므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Daley and Vieglund(1983), 박성만(1990).

[가설 1]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비 자본화방법을 선택한다.

여기서 부채비율(TLTA)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LTA = \text{총부채} / \text{총자산}$$

2) 배당유연화 및 이익유연화

경영자들은 일정율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배당유연화라고 한다. 따라서 낮은 당기순이익으로 말미암아 배당가능잔고(unrestricted earning)가 적어 정상적인 배당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그 기업의 경영자는 이익을 증가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Bowen, Noreen and Lacey(1981). 그러므로 배당가능잔고가 배당금보다 부족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Daley and Vieglund(1983), 박성만(1990).

[가설 2] 배당금에 비하여 배당가능잔고의 수준이 낮은 기업은 연구개발비 자본화 방법을 선택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배당금/배당가능잔고의 비율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당가능잔고는 법령에 의하면(전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임의적립금 이입액 - 법정적립금 적립액)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위 금액을 배당금 금액과 일치하도록 임의적립금이입액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황인태(1995). 따라서 배당유연화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법적인 배당가능 잔고보다는 배당금과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의 비율을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당유연화변수(DIV)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DIV = \text{현금배당금} / \text{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여기서,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말이익잉여금 ± 전기손익수정손익 + 당기순이익

다음으로 분석할 것은 이익유연화가설이다. 낮은 순이익을 실현한 연도에는 경영자는 회계변경 등을 통하여 순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갖는다: Moses(1987). 그러므로 낮은 순이익을 실현한 경영자는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박성만(1990), 최광현(1996).

[가설 3] 비기대이익이 낮은 기업은 연구개발비 자본화방법을 선택한다.

여기서 비기대이익은 당년도와 전년도 경상이익의 차이로 정의한다. 이익유연화변수(INSM)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INSM = (\text{당년도경상이익} - \text{전년도경상이익}) / \text{자본금}$$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매출액의 5%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금액이 매우 커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이를 지출한 연도에 전액 비용화하기 보다는 이연하여 5년간에 걸쳐서 상각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광현(1996).

[가설 4]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은 연구개발비 자본화방법을 선택한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비중(R&D)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D = \text{연구개발비총액} / \text{매출액}$$

3) 정치적 비용

대규모기업은 정치적비용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은 정치적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호한다: Hagerman and Zmijewski(1979), Lilien and Pastena(1982), Dhaliwal, Salamon and Smith(1982), Wong(1988), Zmijewski and Hagerman(1981). 그러므로 대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여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Dailey and Viegland(1983), 박성만(1990), 최광현(1996).

[가설 5] 대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용화방법을 선택한다.

기업의 규모는 매출액 또는 총자산규모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자산규모가 기업의 정치적 비용을 더 잘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성표(1990). 그러므로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금액을 사용하며, 정규성을 높이기 위하여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SIZE = \text{Log}(\text{총자산})$$

정치적 비용의 또 다른 대리변수(proxy)는 규제(regulation)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기업의 경영자는 규제의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을 줄이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호한다: Watts and Zimmerman(1979), Deakin(1979). 그러므로 규제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여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박성만(1990), 최광현(1996).

[가설 6] 규제기업은 연구개발비 비용화방법을 선택한다.

규제변수(REG)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0, 1의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표기한다.

$$\begin{aligned} \text{REG} = 1 & \text{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 & 0 \text{ 일반기업} \end{aligned}$$

4) 기타 변수: 통제변수

위에서 열거한 변수 이외에도 기업의 회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특성, 업종, 그리고 경기변동 등도 기업의 회계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변수인 산업과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을 분석에 추가한다.

$$IND_1 = 1 \text{ 산업분류코드 } 15 - 19$$

$$IND_2 = 1 \text{ 산업분류코드 } 20 - 29$$

$$IND_3 = 1 \text{ 산업분류코드 } 30 - 39$$

$$YEAR_1 = 1 \text{ 1993년도}$$

$$YEAR_2 = 1 \text{ 1994년도}$$

YEAR_t = 1 1995년도

2. 2 종속변수 :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종속변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본화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과 비용화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1, 0의 더미변수로 표기하였다.

AP1 = 1 연구개발비 자본화기업

0 연구개발비 비용화기업

두 번째방법은 총연구개발비 중에서 자본화한 금액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이 측정방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 비율을 전적으로 경영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구개발비 총액 중에는 비경상적인 연구개발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연도에 비용처리하여야만 하는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P2 = 자본화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총액

여기서,

연구개발비 총액 = 자본화된 연구개발비 + 비용화된 연구개발비

자본화된 연구개발비 = 전년말 연구개발비(이연자산) 금액 - 당기말 연구개발비(이연자산) 금액 + 연구개발비상각액 (영업외비용)

비용화된 연구개발비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금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 연구개발비 금액

2. 3 본 연구의 가설과 이전 연구들과의 비교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몇몇 연구들이 있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박성만(1990)과 최광현(1996)이다. 이들의 결과를 보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고 있었다. 또한 규제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비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가설들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본연구의 가설과 이전 연구의 비교

독립변수	측정방법	가설	Daley(1983)		박성만(1990)		최광현(1996)	
TLTA	TL/TA	+	NPLEV/TA PLEV/TA	+** +**	TL/Cap	+**	DRi/DRI	+
DIV	Div/URE	+	Div/URE	+	Div/UARE	+		
INSM	Δ OI/CS	-			Δ OI/OIt-1	-*	Δ OIBR/매출	-
R & D	RD/매출	+					RD/매출	+***
SIZE	Log 총자산	-	매출액	-*	총자산	-	Log 총자산	?
REG	규제기업	-			규제기업	-***	규제기업	-**
TAX							Tax/GP	-***
IND	산업	?					산업	
YEAR	연도	?					연도	
INTCOV			OIBT/INT	-				
RER							(Cap-CS-d)/CS	-***
LAB							L%i/L%1	-
[중속변수]								
더미변수	1 (자본화기업) 0 (비용화기업)		1 (자본화기업) 0 (비용화기업)					
자본화율	자본화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자본화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자본화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Ⅲ. 표본 및 분석모형

3.1 표 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제조업 및 건설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1년부터 1995년 사이 5년간이며, 첫연도인 1991년은 증가액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5개년도 중 1개 연도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5년 전 기간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자료제출에 문제점이 있는 기업들은 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²⁾

2) 이들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도산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3. 2 분석모형과 분석방법

1) 분석모형

가설 1-6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기본모형〉

$$AP1 = \alpha_0 + \alpha_1 TLTA + \alpha_2 DIV + \alpha_3 INSM + \alpha_4 R \& D + \alpha_5 SIZE + \alpha_6 REG$$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설의 변수이외에도 기업의 회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모형으로 산업과 연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을 추가한 확장모형을 아울러 분석한다.

〈확장모형〉

$$AP2 = \alpha_0 + \alpha_1 TLTA + \alpha_2 DIV + \alpha_3 INSM + \alpha_4 R \& D + \alpha_5 SIZE + \alpha_6 REG \\ + \alpha_7 IND_1 + \alpha_8 IND_2 + \alpha_9 IND_3 + \alpha_{10} YEAR_1 + \alpha_{11} YEAR_2 + \alpha_{12} YEAR_3$$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또한 회계정책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분법적 모형과 연속적 모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자본화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 이분법적 모형에 대하여는 프로빗(probit)분석방법을 사용한다. 프로빗분석은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독립변수의 계수를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정규성을 요구하지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기업의 회계정책을 총 연구개발비 지출액에서 자본화한 금액의 비율로 측정된 연속적 모형에 대하여는 연속적 모형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방법인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IV. 분석결과

4. 1 단일변량분석 : t검증

다변량분석에 앞서서 우선 더미변수인 규제기업(REG)를 제외한 각 독립변수에 대

하여 자본화기업과 비용화기업에 대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 <표 2>에 나와 있다.

<표 2> t검증 결과

변 수	가설	평 균		t값	p값
		자본화기업	비용화기업		
TLTA	+	.6478	.6308	2.04	.04**
DIV	+	.2790	.2798	-.06	.95
INSM	-	.0323	.0608	-.57	.57
R & D	+	.0130	.0040	13.26	.00***
SIZE	-	18.9347	18.6422	4.07	.00***

***: p < 0.01, **: p < 0.05, *: p < 0.10

이를 보면 부채비율(TLTA), 연구개발비지출비중(R&D), 그리고 규모(SIZE)가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규모는 가설과는 반대 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2 모형 1: 이분법적 모형

다음 <표 3>은 이분법적 모형에 대한 프로빗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보면 규모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가설과 일치되는 부호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중 부채비율(TLTA)와 연구개발비지출비중(R&D), 규모(SIZE)가 두 모형 모두에서, 규제(REG)가 확장모형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기업이나 비규제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 프로빗분석에서는 피어슨적합도(Pearson goodness-of-fit) 검증에 의하여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프로빗분석은 기본적으로 뭉친자료(collapsed input cases)를 분석에 사용하는데, 본 자료는 사례형태(case-by-case form)로 되어 있어 자유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 모형에 대한 카이제곱통계량은 의미가 없다.

〈표 3〉 프로빗분석 결과

변 수	측정방법	가설	기본모형		확장모형	
			계수	t값	계수	t값
TLTA	TL/TA	+	.5462	2.0590**	.6388	2.2974**
DIV	Div/URE	+	.1180	.7579	.1144	.7263
INSM	△OI/CS	-	-.0364	-.7888	-.0353	-.7572
R & D	RD/sales	+	46.7886	10.5247***	43.1456	9.2827***
SIZE	Log Total Assets	-	.0494	1.4738*	.1130	3.0032***
REG	Regulated	-	-.0395	-.3937	-.1548	-1.4263*
Constant			3.5208	6.1195***	2.00507	2.8190***
피어슨 적합도(X^2)			1690.1		1429.5	

***: $p < 0.01$, **: $p < 0.05$, *: $p < 0.10$

4.3 모형 II : 연속적 모형

다음 〈표 4〉는 연속적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모든 변수가 가설과 일치되는 부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규모(SIZE)가 확장모형의 강제(ENTER)법 회귀분석에서는 반대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비유의적이다. 유의적인 변수들은 보면, 부채비율(TLTA), 연구개발비비중(R & D), 그리고 규제(REG)들로서 이들은 세 모형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앞의 프로빗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규모(SIZE)는 회귀분석에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독립변수들과의 상관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⁴⁾

이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규제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더미변수에서는 산업3 (분류코드 30)에서 유의적인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분야의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 중 0.10이 넘는 것을 보면, 규모(SIZE)와 규제(REG : .4137), 부채비율(TLTA : .3875), 그리고 연구개발비비중(R & D : .1148)이며, 부채비율(TLTA)과 규제(REG)가 .1602를 보이고 있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변수	측정방법	가설	기본모형		확장모형			
					강제법		단계법	
TLTA	TL/TA	+	.1951	.03**	.2205	.01**	.2644	.01**
DIV	Div/URE	+	.0436	.38	.0607	.21		
INSM	△OI/CS	-	-.0105	.46	-.0108	.43		
R & D	RD/Sales	+	8.9583	.00***	6.8554	.00***	6.7988	.00***
SIZE	Log Total Assets	-	-.0005	.96	.0095	.38		
REG	Regulated	-	-.0629	.05*	-.0813	.02**	-.0642	.03**
Constant			.1880	.29	-.0766	.71	.1069	.04**
조정된 R ²			.08538		.13457		.13404	
F			21.724	.00***	18.260	.00***	52.544	.00***

***: p < 0.01, **: p < 0.05, *: p < 0.10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부채비율(TLTA)과 연구개발비비중(R&D) 그리고 규제(REG)가 가설과 일치되는 유의적인 부호를 보이고 있고, 규모변수(SIZE)는 단일변량 t분석과 다변량 프로빗분석에서 유의적인 반대의 부호를 보이고 있었다. 규모변수의 부호가 반대인 것은 그 이유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중(R&D)이 높으며,⁵⁾ 우리나라 대기업을의 정치적 비용의 부담은 미국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성표(1990).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채비율(TLTA)과 연구개발비비중(R&D), 규모(SIZE) 그리고 규제(REG)들 이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규제기업들은 비용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대기업을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이미 여러 문헌에서 알려진 사실이며, 『1994과학기술활동조사보고』에 의하면 대기업 20개사가 우리나라 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절반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연구개발비의 대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이론 및 기업의 경제적 변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자본화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규제기업들이 비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부채비율(TLTA)은 미국에서의 Daley and Viegand(1983)과 우리나라의 박성만(1990)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비중(R & D)에 대하여는 최광현(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규제기업(REG)은 박성만(1990)과 최광현(1996) 모두 검증되었는데, 본 연구와 같이 모두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규모(SIZE)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이거나 미국과는 상반되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정치적 환경이 서로 다름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기업의 회계선택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미국의 결과보다도 유의성에 있어서 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좀 더 뚜렷한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기업 경영자의 관심이 다른 회계처리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연구개발비는 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정책에 대하여 재무적 변수를 중심으로한 계량적인 분석을 행하였지만, 경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설문 등을 이용한 질적인 분석방법의 보완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Bowen, R., E.Noreen and J.Lacey, "Determinants of the corporate decision to capitalize interes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March 1981), pp. 151-179.
- Daily, L.A., and R.L. Vigeland, "The Effects of Debt Covenants and Political Costs on the Choice of Accounting Methods : The Case of Accounting for R&D Cos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December 1983), pp. 195-211.
- Deakin, E.B., "Rational Economic Behavior and Lobbying on Accounting Issues : Evidence from the Oil and Gas Industry," *The Accounting Review*(January 1989), pp. 137-151.
- Dhaliwal, D., G.Salamon, and E.Smith, "The Effect of Owner Versus Management Control on the Choice of Accounting Method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July 1982), pp. 41-53.
- Hagerman, R.L., and M.Zmijewski, "Some Economic Determinants of Accounting Policy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August 1979), pp. 141-161.
- Lilien, S., and V.Pastena, "Determinants of Intramethod Choice in the Oil and Gas Industr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December 1982), pp. 145-170.
- Watts, R., and J.Zimmerman, "Positive Accounting Theory(Prentice Hall, 1986).
- Watts, R., and J.Zimmerman, "Positive Accounting Theory : A Ten Year Perspective," *The Accounting Review*(January 1990), pp. 131-156.
- Watts, R., and J.Zimmerman, "Towards a Positive Theory of the Determin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he Accounting Review*(January 1978), pp. 112-134.
- Wong, J., "Political Costs and and Intraperiod Accounting Choice for Export Tax Credi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January 1988), pp. 37-51.
- Zmijewski, M., and R.Hagerman, "An Income Strategy Approach to the Positive Theory of Accounting Standard Setting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August 1981), pp. 129-140.
- 니시자와오사무·조성표, 연구개발 관리와 회계, 형설출판사, 1996년 7월.
- 박성만,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선택동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0년.
- 조성표, "이익평준화와 평준화유인," 경상논집,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88년 12월, pp. 99-118.
- 조성표 "한국기업의 정치적 비용에 관한 실증연구 : 명시적 조세와 암묵적 조세를 중심으로," 회

계학연구, 한국회계학회, 1990년 9월, pp. 177-205.

최광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대구경북경영학회, 1996년, pp. 193-222.

황인태, “회계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기손익수정을 이용하여,” 한국회계학회 동계 학술발표논문집, 1995년, pp. 163-192.